

## 혁신·무소속 '약진'...민주 텃밭 전남 '이상기류'

### 6·3 지방선거 D-8

非민주당 현역 지역 중심 접전 양상  
22개 시·군 중 절반 가까이 '격전지'  
공천 잡음 고리 민주당 민심 이반 ↑  
민주당 지도부, 표심잡기 집중 공략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전남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6·3 지방선거 전남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뚜렷한 약진세를 보이며 민주당 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4·5면  
특히 현역단체장이 혁신당·무소속으로 출마한 선거구의 경우 승패를 예상하기 힘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텃밭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분류된 곳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강진군, 진도군, 함평군, 곡성군, 신안군 등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역 단체장이 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곳은 순천시, 담양군, 강진군, 진도군 등 4곳이다. 전직 단체장이 후보로 나선 목포·함평까지 더하면 총 6곳에 달한다.  
실제 순천은 현직인 무소속 노관규 후보와 민주당 손훈모 후보, 진보당 이상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담양은 현직인 혁신당 정철원 후보와 민주당 박종원 후보, 무소속 최화삼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강진의 경우 현직인 무소속 강진원 군수와 민주당 차영수 후보가, 진도는 현직인 무소속 김희수 후보와 민주당 이재각 후보가 맞붙은 곳이다.  
목포에서도 민주당 강성후 후보에 맞서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민선 8기 때 중도 낙마한 혁신당 박홍률 후보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 여수에서는 민주당 서영학 후보, 혁신당 명창환 후보, 무소속 원용규·김창주 후보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양 역시 민주당 정인화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성현 후보, 무소속 박필순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함평의 경우 민주당 이남우 후보에 맞서 함평군수를 지낸 혁신당 이운행 후보, 무소속 이형섭 후보가 경쟁 중이며, 곡성도 현직 군수인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혁신당 박용두 후보 간 리턴매치



선거공보물 발송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25일 광주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자가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확인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가 성사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안에서는 징검다리 5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와 혁신당 김태성 후보가 1대1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대 반(反) 민주당 후보 간 전선이 형성되면서 정책 경쟁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선거구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역시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 알림

## 제13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5강

조영구 방송인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법'

오늘 오후 6시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



여를 제공하며 유쾌한 입담속에 담긴 삶의 지혜와 활기찬 변화의 에너지를 통해 우리들의 일상을 새롭게 디자인할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2026년 5월 26일(화) 오후 6시  
▲장소=광주 동구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  
▲강사=조영구 방송인  
▲주제='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법'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전남 각 분야 리더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와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는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5강을 26일 개최합니다.  
5강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동구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조영구(사진) 방송인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로 넘치는 에너지와 성실함의 대명사, 수십 년간 방송계 정상을 지켜온 방송인 조영구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법과 철저한 자기 관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열정 하나로 꿈을 실현해온 그의 생생한 경험담은 도전이 두려운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

## 전남광주특별시 첫 1금고에 '농협은행'

20조8천억 규모 통합 재정 운영  
7-12월 한시...2금고는 '광주은행'  
하반기 차기 금고 공개경쟁 돌입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1금고에 NH농협은행이 선정됐다.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게 됐으며 양 기관은 연말까지 총 20조 8천억 원 규모의 통합 재정을 운영한다.  
광주시·전남도는 지난 22일 광주·전남 합동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1금고에 NH농협은행을, 2금고에 광주은행을 각각 지정했다.  
이번 금고 지정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기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운영 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심의위원회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남도 행

정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의원과 금융·재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광주·전남 대출·예금 규모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공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회계를 맡게 되며, 광주은행은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회계 등 5개 회계를 담당한다.  
광주시·전남도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뒤 오는 6월 중 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전남도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2금고는 광주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올해 기준 광주시 예산은 8조 1천억 원, 전남도

예산은 12조 7천억 원으로 통합특별시 재정 규모는 총 20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향후 4년간 매년 5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내년 통합특별시 예산 규모는 25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올해 하반기 공개 경쟁 방식으로 2027년부터 최대 4년간 운영할 차기통합특별시금고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금고 지정은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체계인 만큼 통상적인 금고 운영과 달리 1금고와 2금고 간 운영 규모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적용할 금고 운영 기준과 선정 방식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당신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보장기간** 2026.1.20. ~ 2027.1.19.(1년)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가입

보험료 부담 없이, 타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현역병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보장기간 중 중립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지급방식**

- 1 상해보상
- 2 보험사청구
- 3 보상여부 검토
- 4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상담 및 청구**

상담(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전화번호 070-4693-1655, 070-8892-3786  
☎ 서류접수(FAX) 070-4758-8556

문의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23

광주광역시 GWANGJU CITY